

사 진 자 료

▶ 전통, 공예로 이어가기

전통 사회에서 공예는 일상의 필수품으로 자리했습니다. 그러나 근대 문명에 의한 생활양식의 변화로 공예는 산업적, 문화적 기반을 급격히 상실해가며 그 쓸모를 잃어가게 되었다. <전통, 공예로 이어가기>는 박물관의 유물로만 존재하고 있던 18C말~20C초 생활 공예품의 공예적 본질은 가져오되 과거의 쓸모가 아닌 오늘날의 삶으로 투영하여 전통 공예의 계승과 진화의 방향성에 대한 방법론을 고민하고자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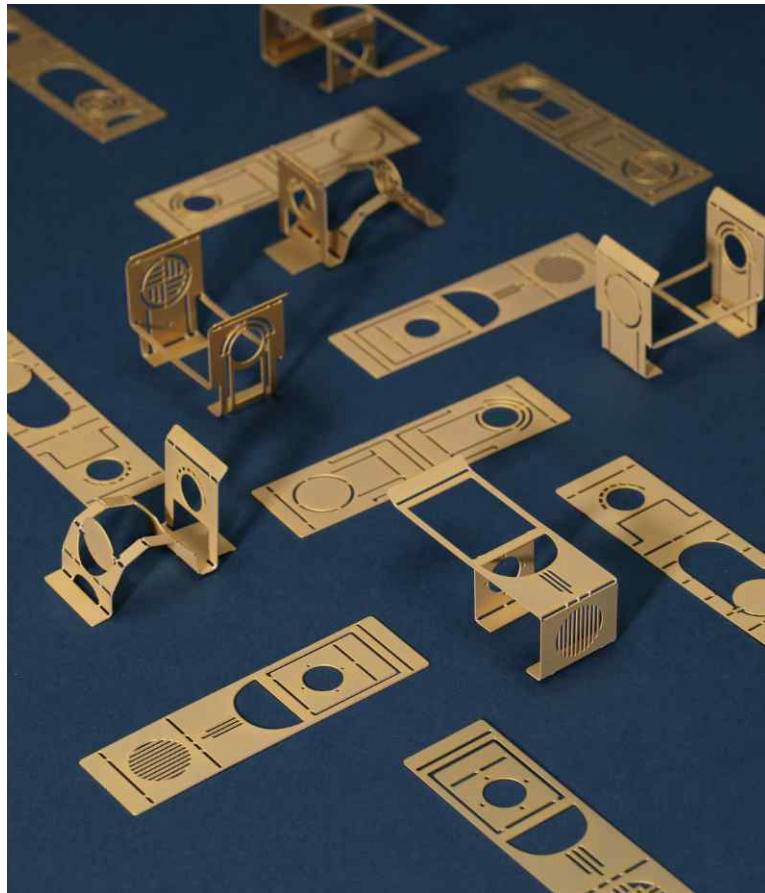


정다혜, <Moment>, 240×440, 말총, 아크릴, 황동선

- ▶ 조선시대 부채에 달던 장식품 선추를 모티브로 제작한 모빌로 말총공예기법을 활용한 상품

▶ 한글, 공예로 풀어쓰기

오늘날 한글은 의사소통의 수단이자 문자로서의 역할을 넘어 새로운 창작의 모티브가 되고 있다. <한글, 공예로 풀어쓰기> 는 한글의 제자원리, 철학적 세계관, 조형적 구조 등 한글이 가진 고유의 가치를 면밀히 살피고 공예적 시선으로 재해석하여 오늘의 삶에 한글의 가치를 새로이 전달하고자 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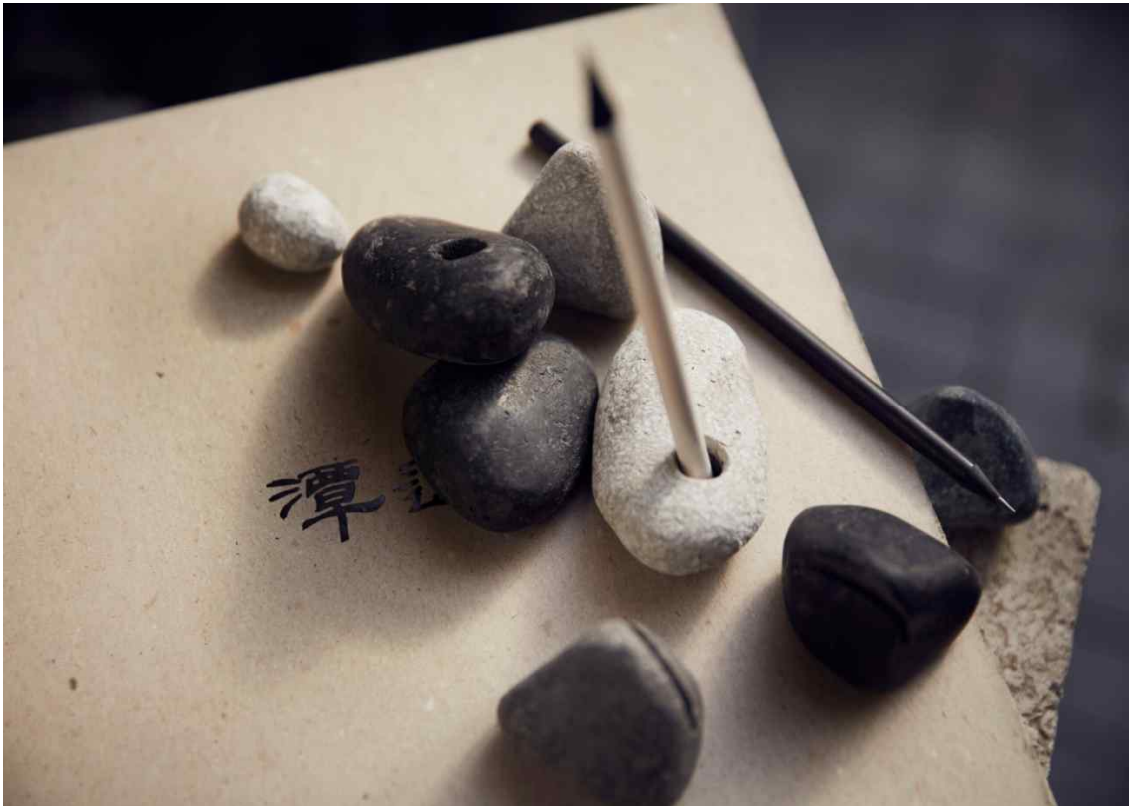


<한글자음 홀더>, 25×89.5×0.5, 스테인리스, 도금

- ▶ 한글자음의 대칭구조를 반사원리로 풀어낸 다용도 홀더로 벽면에 부착하면 빛이나 반사체를 통해 온전한 자음을 이루는 상품

▶ 환경, 공예로 답하기

고도화된 기술이 가져온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파급효과는 대량폐기로 이어지며 환경, 윤리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. <환경, 공예로 답하기>는 버려진 자원에 디자인을 더하거나 활용법을 바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'재활용(Upcycling)'에 공예적 가치를 더해 지속가능성과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.



<꽃돌 연필꽂이>, 50×40×50, 폐종이

▶ 자연물인 돌을 모티브 한 데스크 용품으로

폐사무용지에 전통 지호공예 기법을 활용한 재활용 소재로 제작한 상품